KOSDAQ SMALL-CAP RESEARCH

엠비디 498150 · 의료기기·진단

악재 우위

환자의 암세포를 떼어내 작은 칩 위에서 여러 항암제를 미리 시험해 '이 환자에겐 어느 약이 잘 들을지'를 예측해 주는 정밀의료(맞춤 항암) 진단 기업.

2026년 11월 24일 종가 기준 · 선정 사유: 코스닥 시총 1,000억 미만·거래대금 1위(1,281.4억). 2026년 11월 24일 코스닥 신규상장 첫날 종목으로, 상장 당일 전일 대비 -39.57% 급락하며 거래대금 폭발. 상장 직전 증권신고서·발행실적보고서 공시가 연이어 발생.

시가총액	주가	전일대비	거래대금	PER	PBR	부채비율	당좌비율
607억	4,230원	-39.57%	1281억	적자	N/A	-144.63%	5.14%

쉬운 요약

엠비디는 **2026년 11월 24일 코스닥에 갓 상장한 정밀의료 진단 기업**입니다. 환자의 암 조직을 떼어 작은 칩 위에서 여러 항암제를 미리 시험하고, 어느 약이 잘 들을지를 예측하는 기술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부터 전일 대비 39.57% 급락**했습니다. 공모가를 당초보다 27% 낮춰 입성했는데도 기관 의무보유확약이 0%였던 탓에, 상장과 동시에 물량이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는 아직 초기 바이오 기업의 전형입니다. 2025년 매출 15억에 영업손실 56억, 그리고 **자본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부채비율 -144.63%)**라 PER·PBR 같은 숫자가 아예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술 기대는 분명하지만, 상장 직후 수급과 재무 모두 불안정한 구간입니다.

투자 포인트

1. 2026년 11월 24일 코스닥 신규상장 — 공모가를 당초 대비 27% 낮춰 입성했고, 미국 정밀의료 시장을 성장 동력으로 내세움
2. 암 치료반응 예측(항암제 감수성 검사)이라는 차별화된 기술 테마 — 2025년 매출 15억으로 전년 2억 대비 큰 폭 증가
3. 상장 첫날 거래대금 1,281억·거래량 약 2,394만 주로 시장 관심 집중, 시가총액 607억 규모의 신규 바이오 테마주

핵심 리스크

1. 상장 첫날 전일 대비 -39.57% 급락 — 기관 의무보유확약 0%라는 수급 공백이 그대로 매도 압력으로 나타남
2. 2025년 매출 15억에 영업손실 56억·순손실 21억으로 적자 지속, 부채비율 -144.63%(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재무 구조 취약
3. 자본잠식 탓에 PER·PBR·BPS가 모두 산출 불가 — 밸류에이션 기준점 자체가 없고 실적보다 기술 기대만으로 평가되는 구조

주가·거래량 분석 최근 1년

주가(원)와 거래량 — 최근 1년 일봉

기간	당시 주가	주가 등락	코스닥 지수	지수 대비
1주 전	4,230원	+0.0%	+2.4%	-2.4%
1개월 전	4,230원	+0.0%	-11.4%	+11.4%
3개월 전	4,230원	+0.0%	-	-
1년 전	4,230원	+0.0%	-22.3%	+22.3%

구간	거래량	거래대금	1년 평균 대비
당일	23,937,535주	1281.4억	1.0x
5일 평균	23,937,535주	1012.6억	1.0x
20일 평균	23,937,535주	1012.6억	1.0x
60일 평균	23,937,535주	1012.6억	1.0x
1년 평균	23,937,535주	1012.6억	1.0x

코스닥 지수 대비 = 종목 등락률 − 지수 등락률. 거래대금은 종가×거래량 근사. 출처: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24 기준.

종목 vs 코스닥 지수 (1년 전 = 100)

애널리스트 해석 — 이 가격·거래량이 말하는 것

① **상장 첫날이라 '기간 수익률'은 의미가 없습니다.** 1주·1개월·3개월·1년 등락이 모두 0%로 찍히는 것은 2026년 11월 24일이 거래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비교가가 전부 4,230원으로 동일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이 종목에서 읽을 수 있는 유일한 가격 신호는 **당일 전일 대비 -39.57%**, 그리고 52주 최고 6,700원·최저 4,205원이 모두 상장 당일에 찍혔다는 사실입니다. 하루 안에 고가와 저가가 모두 형성됐다는 것은 극심한 변동성을 뜻합니다.

② **거래량·거래대금은 전형적인 '상장 첫날 폭발'입니다.** 당일 거래량 약 2,394만 주, 거래대금 1,281억 원으로 코스닥 전체 미보도 후보 중 1위입니다. 5일·20일·60일·250일 평균이 모두 당일과 동일하게 찍히는 것은 거래 이력이 하루뿐이기 때문이며, 거래량 배율 1.0x도 같은 착시입니다. 시가총액 607억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 하루에 손바뀜했다는 것은, 이것이 투자가 아니라 **공모주 차익실현과 단타가 맞붙은 매매**라는 뜻입니다.

③ **외국인은 사실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소진율 0.63%로 현재·1개월전·1년전이 모두 동일하게 표시되는데, 이 역시 상장 첫날이라 데이터가 하루치뿐입니다. 0.63%라는 낮은 수치는 외국인 참여가 미미하고 상장 초기 수급이 국내 개인·기관 중심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관 의무보유확약이 0%였다는 보도(딜사이트 2026.11.15)는 이 매도 압력의 구조적 원인입니다.

④ **시장 대비로 따질 기반이 없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닥 지수는 1주 +2.4%, 1개월 -11.4%, 1년 -22.3%지만, 이 종목은 상장 하루라 비교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코스닥이 1년간 -22.3%로 약세인 환경에서 몸값을 낮춰 상장한 바이오주가 첫날 40% 가까이 빠졌다는 사실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시장의 경계가 매우 강한 국면**임을 보여줍니다. **결론: 지금 가격은 기업 가치 평가의 결과가 아니라 '상장 첫날 수급 충돌'의 결과이며, 추세를 논하기엔 데이터가 하루치뿐입니다.**

기업 개요 무엇으로 돈을 버는가

엠비디는 암 치료반응을 예측하는 정밀의료(맞춤 항암) 진단 기업입니다. 환자의 암 조직을 떼어내 미세한 칩(마이크로플루이딕 기반 플랫폼) 위에서 여러 항암제를 동시에 시험하고, 어느 약이 그 환자에게 잘 들을지를 미리 알려주는 '항암제 감수성 검사'가 핵심입니다. 2026년 11월 24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했으며, 미국 정밀의료 시장 진출을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매출은 15억으로 전년(2억) 대비 크게 늘었으나 여전히 영업적자 단계입니다.

사업·제품 구성

사업/제품	설명·비중
항암제 감수성 검사(CSC)	환자 암세포로 여러 항암제의 반응을 미리 측정해 치료 선택을 돕는 핵심 서비스. 매출 비중은 DART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II. 사업의 내용' 확인 필요.
진단 플랫폼·소모품	검사에 쓰이는 칩·장비·시약 등 의료용 기기 제조. 반복 소모품 매출이 중장기 수익 구조의 관건이며 비중은 DART 공시 확인 필요.
해외(미국) 사업	미국 정밀의료 시장을 겨냥한 서비스·라이선스 확장을 상장 스토리로 제시. 실제 매출 기여는 아직 초기 단계로 추정, 증권신고서 매출 추정 근거 확인 필요.
매출 비중	사업부문별 정확한 비중은 DART 증권신고서(2026.08.28·발행조건확정 2026.11.10) 및 향후 사업보고서에서 확인 필요.

고객과 판매 구조

고객은 암 환자를 진료하는 **대학병원·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으로, 의료진이 치료 전략을 세울 때 검사를 의뢰하는 구조로 추정됩니다. 검사 수요가 매출로 직결되므로 병원 채택 수와 검사 건수가 핵심 지표입니다. 엠비디는 이를 넘어 **미국 정밀의료 시장**으로의 확장을 상장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매출(2025년 15억)은 초기 규모입니다. 정확한 고객 구성·수가 구조는 DART 증권신고서 사업의 내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경쟁 구도

국내외에서 암 유전자 기반 동반진단(차세대 염기서열분석, NGS)을 하는 기업들과 '치료반응 예측'이라는 목적에서 경쟁 관계에 놓입니다. 엠비디의 차별점은 유전자 정보가 아니라 **실제 환자 세포에 약을 직접 시험하는 기능적 검사(functional assay)**라는 점으로, 이는 기술적 독창성이 강점이지만 표준화·보험수가 확보가 어렵다는 약점도 됩니다. 2025년 매출 15억 수준의 소규모라 대형 진단기업 대비 규모·레퍼런스에서 열위에 있으며, 경쟁사 실명·비교는 DART 증권신고서의 경쟁현황 항목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산업 밸류체인

정밀의료 항암 진단 — 검체에서 치료 선택까지

맞춤 항암 진단 산업은 위로는 환자 검체와 항암제·장비 공급에 기대고, 아래로는 병원의 채택과 건강보험 수가 결정에 좌우됩니다. 엠비디는 이 사슬의 **중간(검사 플랫폼·서비스 제공)**에 위치하며, 검체를 받아 치료 선택 정보를 만들어 병원에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① 원재료·장비
항암제(제약사), 칩·시약·마이크로플루이딕 부품, 세포 배양 소재 공급사

›

② 진단 플랫폼·검사
엠비디(항암제 감수성 검사), NGS 동반진단 기업, 기능적 검사 스타트업

›

③ 의료기관·처방
대학병원·종합병원 종양내과 — 검사 의뢰 및 치료 선택 주체

›

④ 최종 수요·지불
암 환자, 건강보험공단·민간보험(수가·보험 적용 결정), 해외(미국) 의료시장

밸류체인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1. **'기술이 좋다'와 '돈이 된다'는 다른 문제다.** 엠비디의 기능적 항암제 감수성 검사는 차별화된 기술이지만, 2025년 매출이 15억에 그친다. 기술의 임상적 유용성과 실제 매출화 사이의 간극이 이 산업 초기 기업의 핵심 과제다.
2. **보험수가가 사업성을 결정한다.** 검사가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는지, 비급여라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할지가 수요 규모를 좌우한다. 수가 확보 전까지는 병원 채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3. **미국 시장은 기회이자 불확실성이다.** 상장 스토리의 핵심인 미국 정밀의료 진출은 큰 시장이지만, FDA·CLIA 인증과 현지 보험 적용이라는 높은 진입장벽이 있다. 공시된 실적 기여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에 머문다.
4. **자본잠식 상태의 성장주다.** 부채비율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기업이 상장 공모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확장하는 구조다. 공모 자금 소진 속도와 추가 조달 필요성이 주주가치를 크게 좌우한다.
5. **상장 직후 수급이 펀더멘털을 압도한다.** 의무보유확약 0%라는 수급 구조에서는 기업의 기술·실적보다 공모주 차익실현 물량의 출회가 단기 주가를 지배한다. 첫날 -39.57%가 그 증거다.

어떤 이슈에 얼마나 민감한가

영향 요인	방향	민감도	왜 그런가
건강보험 수가·급여 적용	+	매우 높음	검사의 급여 편입 여부가 병원 채택과 매출 규모를 직접 좌우. 비급여면 수요가 제한됨
미국 정밀의료 시장 진출	+	높음	상장 스토리의 핵심 성장 동력. 단 FDA·CLIA 인증과 현지 보험 적용 확인 전까진 기대 단계
공모주 수급·의무보유확약	−	매우 높음	의무보유확약 0%로 상장 직후 매도 물량 집중. 첫날 급락의 직접 원인
추가 자금조달·자본잠식	−	높음	자본잠식 상태에서 공모 자금 소진 시 추가 증자 가능성. 지분 희석·주가 압력 요인
항암제·바이오 투자 심리	±	중간	바이오 섹터 투자 심리와 신규 상장주 선호도에 연동. 코스닥 약세장에선 불리

임상 레퍼런스·논문·채택 병원 수	+	높음	기술 신뢰도와 매출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지표. 채택 병원 확대가 핵심 증거
원/달러 환율	±	낮음	미국 사업 확대 시 수출 수익에 영향. 현재는 매출 기여가 작아 민감도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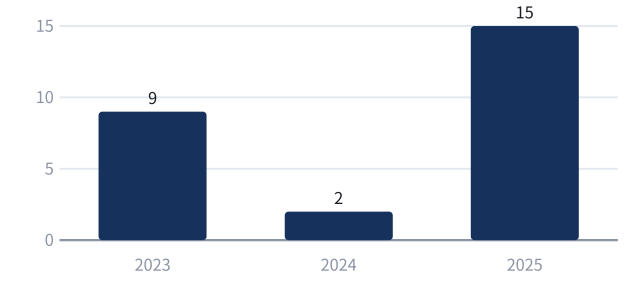
실적 분석 연간·분기

연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3	9	-53	-75
2024	2	-62	-110
2025	15	-56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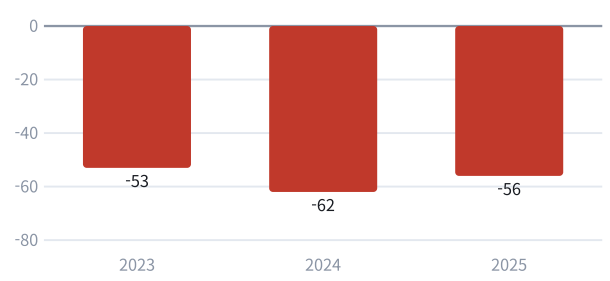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5.4Q	-	-	-
26.1Q	-	-	-
26.2Q	-	-	-
26.3Q	-	-	-

단위: 억원 · 출처: DART 사업·반기·분기보고서 기반 공개 재무데이터. (E)는 시장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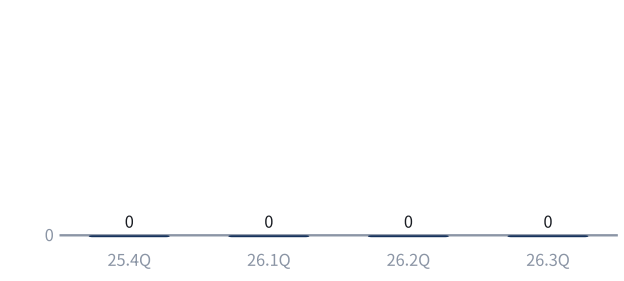
연간 매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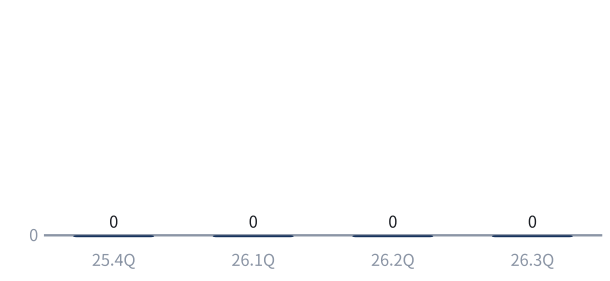
연간 영업이익



분기 매출액



분기 영업이익



애널리스트 해석 — 숫자 뒤의 이야기

매출 규모 자체가 아직 매우 작습니다. 2023년 9억 → 2024년 2억 → 2025년 15억. 변동폭이 큰 것은 절대 규모가 작아 몇 건의 계약·검사에 따라 숫자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5억은 전년 2억 대비 의미 있는

반등이지만, 영업손실 56억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매출보다 비용이 훨씬 큰, 전형적인 상장 전 적자 바이오 기업**의 손익 구조입니다.

영업적자는 3년 연속입니다. 영업이익 -53억(2023) → -62억(2024) → -56억(2025). 영업이익률이 -369%에서 -2,566%까지 찍히는 것은 매출 대비 고정비(연구개발·인건비)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뜻입니다. 다만 순손실은 -75억 → -110억 → -21억으로 2025년에 크게 줄었는데, 영업손실(-56억)보다 순손실(-21억)이 작다는 것은 **영업 밖에서 이익 요인이 있었다는 의미**로, 상장 전 자본 거래·평가이익 등의 영향일 가능성이 있어 감사보고서 주석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주목할 신호는 자본잠식입니다. 부채비율이 -116%(2023) → -112%(2024) → -144%(2025)로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부채비율이 음수라는 것은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즉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BPS가 -3,522원, PBR과 PER이 아예 계산되지 않습니다. 당좌비율도 5.14%로 극히 낮아, 단기 지급능력이 공모 자금 유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 상장 공모가 이 재무를 바꾸는 분기점입니다. 공모로 들어온 자금이 자본에 더해지면 자본잠식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모가를 당초보다 27% 낮춰 조달 규모가 줄었고, 적자가 지속되는 한 조달 자금은 다시 소진됩니다. **상장 이후 첫 사업·분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 해소 여부와 공모 자금 사용 계획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연간 및 분기 실적은 아직 공시 전이라 숫자가 비어 있습니다.

호재 주가에 힘이 되는 요인

확인된 호재와 기대 요인

2026년 11월 24일 코스닥 신규상장 — 자금조달 성공

상장예비심사 승인(7월 31일)부터 증권신고서 제출(8월 28일), 발행조건 확정(11월 10일), 상장(11월 24일)까지 공모 절차를 완주했습니다.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던 회사가 공모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재무 구조 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출처 · DART 증권발행실적보고서 2026.11.17 / 연합뉴스 2026.11.20

차별화된 항암제 감수성 검사 기술

유전자 정보가 아니라 환자 실제 세포에 항암제를 직접 시험하는 기능적 검사라는 독창성을 갖췄습니다. 상장예비심사에서 '실적 뻥튀기' 잣대를 넘어 승인됐고(톱데일리 2026.09.16), 암 치료반응 예측이라는 정밀의료 테마에 부합합니다.

출처 · 데일리메디 2026.08.05 / 톱데일리 2026.09.16

2025년 매출 15억 — 전년 대비 큰 폭 증가

매출이 2024년 2억에서 2025년 15억으로 7배 이상 늘었습니다. 절대 규모는 여전히 작지만 상업화 초기 단계에서 매출이 반등했다는 점은 기술의 시장 수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출처 · DART 감사보고서 2026.03.25

미국 정밀의료 시장 진출을 성장 스토리로 제시

상장 과정에서 미국 정밀의료 시장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내세웠습니다. 글로벌 최대 시장을 겨냥한 확장 전략은 성공 시 매출 규모를 크게 키울 수 있는 상방 요인입니다. 다만 현재는 기대 단계이며 실제 매출 기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비즈워치 2026.11.09

공모가를 27% 낮춰 상장 — 가격 부담 완화

당초 희망 밴드 대비 공모가를 27% 낮춰 몸값을 조정한 뒤 입성했습니다. 연이은 상장 철회 분위기 속에서도 상장을 완주했으며, 낮춘 공모가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을 덜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출처 · 매일경제 마켓 2026.11.24 / 비즈워치 2026.11.21

악재 반드시 감안할 위험

확인된 악재와 리스크

상장 첫날 전일 대비 -39.57% 급락

2026년 11월 24일 상장 첫 거래일에 전일(공모가) 대비 39.57% 급락하며 종가 4,23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공모가를 이미 27% 낮춰 입성했는데도 추가로 크게 빠진 것은, 상장 직후 시장이 이 가격을 비싸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줍니다. 52주 최고 6,700원·최저 4,205원이 모두 상장 당일 형성됐을 만큼 변동성이 극심합니다.

출처 · 전자신문 2026.11.24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

기관 의무보유확약 0% — 수급 공백

보도에 따르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 925곳의 의무보유확약이 0%였습니다. 즉 상장과 동시에 기관 배정 물량이 자유롭게 매도될 수 있는 구조로, 첫날 매도 압력의 구조적 원인이 됐습니다. 보호예수 물량이 없다는 것은 상장 초기 주가 하방 위험을 크게 키웁니다.

출처 · 딜사이트 2026.11.15 / 매일일보 2026.11.22

완전자본잠식 상태 — 부채비율 -144.63%

2025년 말 기준 부채비율이 -144.63%로, 자기자본이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 상태입니다. BPS도 -3,522원으로 음수입니다. 공모 자금으로 자본을 보강하더라도, 적자가 지속되면 자본잠식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상장 후 첫 보고서에서 자본잠식 해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 DART 감사보고서 2026.03.25

3년 연속 영업적자, 당좌비율 5.14%

영업손실이 -53억(2023)·-62억(2024)·-56억(2025)으로 3년 연속입니다. 당좌비율은 5.14%로 극히 낮아, 단기 현금 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합니다. 매출 15억으로는 연 50억대 영업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사업 지속이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는 구조입니다.

출처 · DART 감사보고서 2026.03.25

밸류에이션 기준점 부재 — PER·PBR 산출 불가

자본잠식과 적자로 PER·PBR·EPS·BPS가 모두 N/A 또는 음수로 산출되지 않습니다.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판단할 전통적 지표가 없어, 주가가 실적이 아니라 기술 기대와 수급으로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실적 뻥튀기' 논란(톱데일리 2026.09.16)이 제기됐던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 톱데일리 2026.09.16 / 수집 지표표 2026.11

상장 첫날 거래대금 폭발 — 단기 매매 성격

상장 첫날 거래대금 1,281억·거래량 약 2,394만 주로, 시가총액 607억의 두 배가 넘는 금액이 하루에 손바뀜했습니다. 이는 장기 투자가 아니라 공모주 차익실현과 단타가 주도하는 전형적 상장 초기 과열입니다. 거래가 식으면 유동성과 가격이 동시에 급락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 / 뉴스핌 2026.11.24

상장 전 실적·밸류에이션 논란

상장 과정에서 '최대 1,600억대 밸류, 실적 뻥튀기 잣대를 넘어설까'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톱데일리 2026.09.16). 작은 매출 규모와 자본잠식 상태에서 산정된 공모가·시가총액이 적정한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상장 전부터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출처 · 톱데일리 2026.09.16

거래 이력 하루 — 데이터 판단 근거 부족

상장 첫날이라 5일·20일·60일·250일 평균 거래량·거래대금이 모두 당일과 동일하게 표시되고, 기간 수익률도 전부 0%입니다. 추세·변동성·수급 흐름을 판단할 통계적 근거가 하루치뿐이라, 현재 가격이 안정 수준인지 과도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출처 · 네이버 증권 일봉 2026.11

공시 타임라인 최근 9개월 DART

접수일	보고서명	제출인
2026.11.17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엠비디
2026.11.10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엠비디
2026.10.15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엠비디
2026.09.18	[기재정정]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엠비디
2026.08.28	증권신고서(지분증권)	엠비디
2026.03.25	감사보고서 (2025.12)	삼일회계법인

출처: DART 전자공시시스템 공시서류검색. 정기보고서(사업·반기·분기)는 회색 참고용.

공시 흐름 해석

공시를 시간순으로 읽으면 **'상장 준비 → 조건 확정 → 상장 완료'**라는 IPO 절차 그 자체입니다. 2026년 3월 감사보고서(2025년 결산)에서 자본잠식·적자 구조가 확인됐고, 7월 상장예비심사 승인 이후 8월 28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9월 18일·10월 15일 두 차례 기재정정을 거쳐 11월 10일 발행조건을 확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모가가 당초 대비 27% 낮아졌습니다. 11월 17일 증권발행실적보고서로 공모가 마무리됐고 11월 24일 상장했습니다. **핵심은 이 공시 흐름이 '자본잠식 기업이 공모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두 차례 정정과 공모가 하향은 수요예측이 순탄치 않았음을 시사하며, 의무보유확약 0%라는 보도까지 겹치면서 상장 첫날의 급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조달된 자금의 사용처와 자본잠식 해소 여부는 향후 사업보고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 목표주가 없음 · 방향과 조건만

강세 시나리오

공모 자금 유입으로 자본잠식이 해소되고, 미국 정밀의료 시장 진출에서 구체적 계약·채택 병원 확대가 공시로 확인된다. 건강보험 수가 적용 진전으로 매출이 2025년 15억에서 유의미하게 성장. 상장 초기 매도 물량이 소화되며 거래가 안정화. **조건: 자본잠식 해소·매출 성장·미국 사업 실적화 중 복수가 공시로 확인되어야 함.**

기본 시나리오

상장 초기 공모주 차익실현 물량이 당분간 주가를 누르고, 거래대금이 급감하며 변동성이 축소된다. 미국 사업과 수가 확보는 시간이 걸려 2027년 이후 가시화. 매출은 완만히 늘지만 적자가 이어져 추가 자금조달 가능성이 상존. 주가는 실적보다 바이오 테마 심리와 수급에 따라 넓은 박스권에서 움직인다. **상장 직후 신규 바이오주의 전형적 경로.**

약세 시나리오

상장 첫날 급락 이후 추가 매도가 이어지며 공모가 대비 낙폭이 확대된다. 적자 지속으로 공모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추가 증자가 필요해져 지분 희석. 미국 사업·수가 성과가 지연되며 기술 기대가 약화. 코스닥 약세장과 맞물려 거래 급감·유동성 악화. **자본잠식·의무보유확약 0%라는 구조가 현실화하는 경로.**

앞으로 확인할 것

1. 상장 후 첫 사업·분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 해소 여부와 공모 자금 사용 계획 (DART, 다음 정기보고서)
2. 2025년 순손실(-21억)이 영업손실(-56억)보다 작은 이유 — 영업외 이익 항목 (감사보고서 주석)
3. 미국 정밀의료 시장 관련 구체적 계약·채택 공시가 실제로 나오는지 (DART 수시공시)
4. 항암제 감수성 검사의 건강보험 수가·급여 적용 진전 여부 (보건당국·회사 IR)
5. 상장 초기 보호예수 없는 기관·공모 물량의 출회 속도와 거래대금 안정화 여부 (네이버 증권 일봉)
6. 다음 분기 매출이 2025년 15억 대비 성장 추세를 이어가는지 (분기보고서)

오픈팩트의 결론

엠비디는 **2026년 11월 24일 상장한 정밀의료 진단 기업으로, 차별화된 항암제 감수성 검사 기술은 분명한 매력**입니다. 다만 2025년 매출 15억에 3년 연속 영업적자, 그리고 **부채비율 -144.63%의 완전자본잠식이라는 재무 구조가 기술 기대를 앞섭니다.** 무엇보다 상장 첫날 전일 대비 -39.57% 급락과 기관 의무보유확약 0%라는 수급 공백은, 현재 가격이 기업 가치가 아니라 상장 초기 물량 충돌로 형성됐음을 보여줍니다. 거래 이력이 하루뿐이라 추세를 논하기 이르며, **자본잠식 해소와 매출 성장이 공시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기술 기대만 있고 실적·수급은 불안정한' 전형적 상장 직후 바이오주**로 접근해야 합니다.

시가총액 주가×주식수, 시장이 매긴 회사 몸값 · **PER** 주가가 순이익의 몇 배 · **PBR** 주가가 순자산의 몇 배(1배 미만이면 장부보다 싸게 거래) · **부채비율** 빚÷자기자본(200% 초과 주의, 400% 이상 위험) · **당좌비율** 즉시 현금화 가능 자산÷1년 내 갚을 빚(100% 미만이면 빠듯) · **유상증자** 새 주식을 찍어 돈을 받는 것(기존 주주 지분 희석) · **무상감자** 주식 수를 줄여 손실을 터는 절차(손실을 주주가 부담) · **전환사채(CB)**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빚(전환되면 지분 희석) · **수주잔고** 계약은 했지만 아직 매출로 안 잡힌 물량 · **외국인 소진율**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한도 중 실제 보유 비율 · **거래대금** 주가×거래량, 그날 실제로 오간 돈의 크기 · **밸류체인** 원료→부품→완제품→고객으로 이어지는 산업의 사슬

본 자료는 공개 정보(DART 전자공시, 공개 재무데이터, 언론보도)를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투자 권유·자문이 아닙니다. 재무 수치는 DART 공시 기반 공개 데이터를 옮긴 것으로 원문 재무제표와 표기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수주·계약 금액 일부는 언론 보도에 근거해 공시로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시세·지표는 표기된 기준일 종가 기준 이며 이후 변동됩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